

2018년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축일을 지내는 4월 29일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카타리나는 건강이 매우 약했지만 사도적 활동과 교회를 위한 정치적 및 외교적 활동에서는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삶과 사상을 조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정부와 가정들이 그럴듯이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겪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생활 방식과 가치 체계가 허물어지고 사라지며 새로운 어떤 것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와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많은 점들이 공통되고, 우리 자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카타리나는 교회에 대해 말하지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지닌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를 위해 살고 또 죽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죽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카타리나와 같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현세적 갈등에 무관심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과 그 충만한 실현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녀를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짧은 시에나의 여인은 확실한 발걸음과 열렬한 말들로, 그 시대 교회와 사회의 문제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교황 서한 *Spes aedificandi*, 1999년 10월 1일, 6).

성녀를 교회 학자로 선포한 바오로 6세는 그가 “정치적이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했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 가지로 장엄하게 인정된 여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카타리나와 같은 나라 출신인 비오 2세는 1461년에 그를 시성했습니다. 바오로 6세는 1970년에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카타리나를 교회 학자로 지명했는데, 그때까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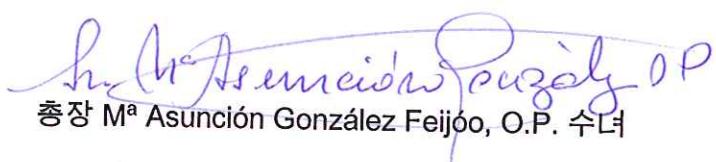
호칭은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 세는 그를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가 신앙의 거인이며 특별한 비중을 지닌 여인임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글을 몰랐고, 하느님 체험으로 인하여 영성의 스승이 되고 평신도, 귀족, 초기경, 주교, 수도자 등 모두의 조언자가 되었으며 평화를 촉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됨으로써, 그리고 탈벼 없이 사랑했던 교회에 대한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나의 본성은 불”이라는 말로 자신을 정의했고, 이 불 때문에 말하고 기도하고 혼합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완덕을 구현했습니다. 성 토마스는 활동과 관상이 혼합된 삶이 “더 완전하다. 불타기만하거나 비추기만 하는 것보다 불타며 비추는 것이 더 완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Timothy Radcliffe 신부는 성녀 카타리나가 교회 학자로 선포될 때에 수도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성녀의 메시지의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카타리나의 유럽은 오늘 우리의 세상과 같이 폭력과 불확실한 미래로 특징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정체성이 상실되었으며, 수도 생활에도 위기가 있습니다”(수도회에 보낸 편지, Roma, 2000년). 성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와 사회의 개혁과 평화라는 어려운 과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사회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상황들에 대처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가 충돌하는 세상에서, 정의가 아니라 더 강한 법이 승리한느 세상에서 카타리나는 진정한 평화로 촉진하는 자신의 생각을 우릴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평화를 이루고자 칼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로, 겸손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간절한 갈망에서 나온 땀과 눈물로 싸웠습니다. 쉽고 값싼 평화를 위해 진리나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았고, 거부를 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박해와 거부를 당하더라도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할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 특히 그 평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기쁜 성녀 카타리나 축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장 Mª Asunción González Feijóo, O.P. 수녀